

동영상 강의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HIV/AIDS 교육의 효과

서명희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The Effect of HIV/AIDS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y Video-Learning Methods

Myoung Hee Seo
Division Department of Nursing, VISION university,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는 동영상 강의를 통한 간호대학생의 HIV/AIDS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단일군 사전사후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V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 93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동영상 강의 전보다 후에 HIV/AIDS 지식과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태도의 세부항목 중 사회적 낙인인식의 차이는 미흡했다. 또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HIV/AIDS에 대한 인식개선을 좀 더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 낙인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동영상 강의가 간호대학생의 HIV/AIDS 지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임이 입증되었으며, 본 연구는 추후 다양한 콘텐츠를 동영상 강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is a single group pre-post study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HIV/AIDS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imparted via video-learning methods. Study participants enrolled were 93 students in the 4th grade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J-City V Univers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6 to June 16, 2020, and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test, independent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the SPSS WIN 23.0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 improvements in HIV/AIDS knowledge and attitude after attending video-learning modules. However, when assessing the details of attitude, insufficient data was obtained for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social stigma recognition. Therefore, numerous attempts are required for imparting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hat will positively alter social stigma recogn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e that video lectures are a useful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transform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towards HIV/AIDS. We believe that results obtained are meaningful, and provide a basis for imparting education by utilizing different media, such as a video-learning module.

Keywor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ttitude, Education, HIV, Knowledge, Learning,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Myoung Hee Seo(VISION univ., college of Jeonju)

email: seomh@jvision.ac.kr

Received July 8, 2020

Accepted October 5, 2020

Revised August 5,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fection/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HIV/AIDS) 통계연보에 따르면[1] 우리나라 HIV 감염인이 처음으로 진단된 시기는 1985년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현재는 15,579명이 진단되었고, 이중 83.8%인 12,991명이 국내 내국인 생존 감염인이다. 이제 더 이상 HIV/AIDS는 죽음을 대표하는 질병이 아니며 지금도 많은 수의 HIV 감염인들은 질환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도 HIV/AIDS를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항레트로 바이러스의 개발은 질병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AIDS를 제 3급 감염병으로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고 있다[3].

일반인들의 경우 HIV/AIDS에 대한 정보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고[4], 이러한 미디어에서는 질병에 대한 사실적 접근보다는 드라마틱하고 흥미중심의 컨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5].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책자를 펴내고 언론이 책임감을 가지고 에이즈 관련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시기를 촉구하기도 하였다[6].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가지는 HIV/AIDS 관련 연상 이미지로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편향 시선이 높고 이에 따라 질병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이 매년 질병관리본부 및 보건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일반인들 뿐 아니라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들에게서도 낙인과 차별의식 또는 부정적 태도가 만연해 있다[7,8].

2020년 현재 “코로나 19”라는 전세계적인 감염병[9]이 온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태원발 코로나 19의 확산이 있었다. 확진자가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출입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노선을 공개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숨어버리는 상황들이 뉴스 보도되었다. 이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비난적인 보도들이 계속되고, 동성애자들과 연관되어 더불어 HIV/AIDS에 대한 부정적

인 언론보도가 있어왔다[10]. 이러한 감염병에 민감한 현실 속에서 감염인들을 돌보아야 할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은 HIV/AIDS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HIV 감염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간호 대학생들이 HIV/AIDS 관련 교육은 성인간호학[11], 여성건강간호학[12], 의료관련 법규[13]과목 등 전공과목에서 다루어지는데, 대부분 질병과 간호, 법적인 측면에서 HIV/AIDS를 배우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간호 대학생들의 HIV/AIDS에 대한 지식정도가 다른 타과학생들과의 비교에서 일정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며[14,15], 질병에 대한 정보를 TV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15], HIV/AIDS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간호 대학생들의 편견이나 태도가 일반인의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그 권리를 보건의료기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의료인들은 대상자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6] 또한 우리나라 국민건강종합계획인 Health plan 2020의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 중 HIV/AIDS 분야에서는 유행을 예방하고 감염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17]. 그러므로 HIV 감염인들은 질병으로 의하여 의료인에게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국민이 누리는 건강권, 그리고 건강 형평성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2020년 현재 코로나 19의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감염위기 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예방 및 대응지침을 내놓았다[18].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의 대학에서는 비대면 강의로 대부분의 강의를 진행하고, 일체의 대규모 집단의 모임 등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학기에 HIV/AIDS에 대한 특강을 계획했던 학기 초의 계획을 대면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동영상 특강을 통해서 간호학생들의 HIV/AIDS에 대한 지식, 태도의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 특강 전, 후로 HIV/AIDS에 대한 대상자들의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법의 확대운영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HIV/AIDS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확인하고 동영상 강의라는 방법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HIV/AIDS의 지식, 태도 정도를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동영상 강의 전, 후의 지식, 태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영상 강의 후-전의 지식, 태도점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HIV/AIDS의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전 후간 HIV/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이다(Fig. 1).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에 위치하고 있는 V대학 간호학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연구를 위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Paired t-test를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효과크

기는 중간효과크기 .30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수는 82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학년 전체 인원인 93명을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HIV/AIDS에 대한 지식

HIV/AIDS 지식 측정도구는 2015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한 AIDS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4]에서 사용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HIV/AIDS 관련 지식문항은, 대국민 AIDS 지식 평가 8문항과 WHO권고 AIDS 지식평가 3문항으로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예”, “아니오”, “모르겠다”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역문항의 경우 역환산 처리하여 정답은 1점, “모르겠다”를 포함한 오답은 0점을 부여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HIV/AIDS 관련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015년 연구시에는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서는 KR₂₀은 .52였다. 이는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나 2015년에 사용된 원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점, WHO에서 AIDS에 대한 지식측정 문항으로 권고한 내용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하였다.

2.3.2 HIV/AIDS에 대한 태도

HIV/AIDS에 태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2015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일반인 대상 AIDS 지식태도 신념 및 행태조사[4]에서 사용된 도구 중 2문항을 제거하고 이용하였다. 2문항을 제거한 이유는 2문항인 낙관적 편견과 감염 후 대처에 대한 문항의 내용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태도의 세부 구성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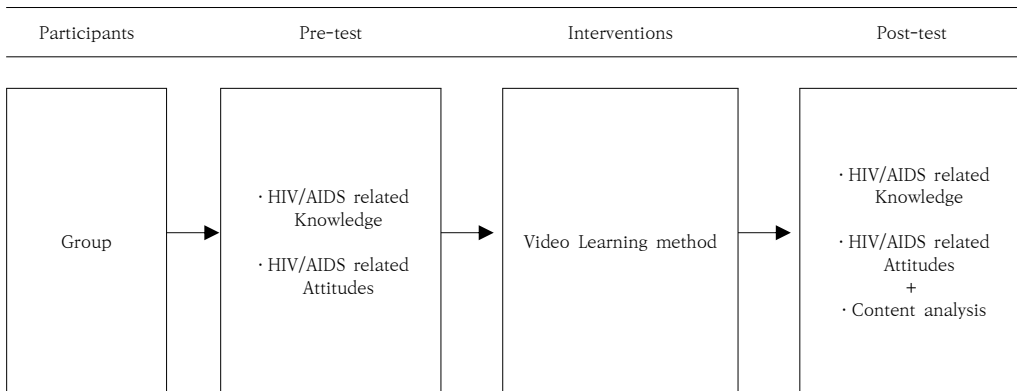


Fig. 1. Study design

은 감염의 두려움 6문항, 감염에 대한 부정적 태도 6문항, 개인적 낙인인식 5문항, 사회적 낙인인식 7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하였기에 모든 문항을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HIV/AIDS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도록 통계처리 하였고, 24문항의 총합으로 HIV/AIDS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본 도구의 2015년 보고당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91였다. 세부 구성 항목별로 감염인에 대한 두려움 .91,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86, 개인적 낙인인식 .86, 사회적 낙인인식은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24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 .94였고, 세부 구성영역별로는 감염인에 대한 두려움 .92,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82, 개인적 낙인인식 .89, 사회적 낙인인식 .89였다.

2.3.3 주관식 문항 내용분석

연구자는 대상자들의 동영상 강의에 대한 주관식 평가를 위해 동영상 강의 후 추가적인 질문지를 제공하여 강의 후 처음 알게 된 것과 동영상 강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여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다.

2.3.4 일반적 특성 조사지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경제상태, 졸업 후 취업 희망기관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으며, 먼저 전공 필수과목인 지역사회간호학 과목을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던 중 대상자들에게 11주차에는 특강이 있음을 공지하고, 10주차 종료 시에 특강 전 설문문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1주차에 구글 클래스룸에 게시된 HIV/AIDS 관련 특강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특강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하여 30분 내외의 동영상 2개로 나누어 탑재하였고, 11주차 동영상 특강을 시청한 후 설문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강 전 후 설문문은 비대면 강의 진행 중에 이루어져 온라인 설문형태로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설문작성 요령, 소요시간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 후 다음 주차에 동영상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후 설문을 하도록 하고, 동영상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된 것, 기타 피드백 및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호학부 4학년 학생 94명이 사전 설문문에 응답하였고, 교육 후 설문 응답이 누락된 1명이 탈락하여 총 93명의 교육 사전, 사후 설문응답을 수집하였다.

2.5.1 강의 자료의 구성

동영상 특강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표준 교육자료와 2018년 HIV/AIDS 통계연보[1]를 이용하여 교수자가 제작하였다. 특강 자료는 "HIV 감염인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세션 1은 HIV 감염, HIV/AIDS 임상경과, 전파경로, 감염확률, 감염의 조건, 의료행위 중의 예방원칙,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치료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세션 2는 우리나라의 HIV/AIDS발생 현황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나라 감염인 수, 성별 및 연령별 감염인 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세션 3은 AIDS와 인권의 부분으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AIDS에 대한 기사의 예, 의료현장에서의 위법 의료행위, 감염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사례,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나의 생각을 정립하기,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참여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의에 따라 연구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교육개선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문 문항 시작 전 설명문에 게시하여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설문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한 개인특성을 조사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부여한 일련번호를 동영상 강의 전, 강의 후 설문문에 동일하게 기재하게 함으로써 연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7 자료분석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HIV/AIDS에 대한 강의 전, 후 지식, 태도는 평균과 백분율로 구하였다.
- 대상자의 강의 전, 후 HIV/AIDS 지식, 태도간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 지식, 태도 점수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è tes로 분석하였다.
- HIV/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추가분석으로 강의 후 주관식 문항에 대하여 기술된 자료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는 모두 간호학부 4학년 학생으로 총 93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91.8%)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다. 평균 나이는 23.9세로 25세 이하가 76명(81.7%)이었고, 26세 이상이 17명(18.3%)이었다. 종교는 있는 경우가 45명(48.4%), 없는 경우가 48명(51.6%)이었으며, 결혼상태는 88명(94.6%)이 미혼이었다. 가정의 경제상태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 15명(16.1%), 200~400만원이 31명(33.4%), 400~600만원이 28명(30.1%), 800만원 이상이 8명(8.6%)이었으며, 희망취업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 61명(65.6%)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93)

Variables	Classification	n(%) or M±SD
Sex	Male	2(2.2)
	Female	91(97.8)
Age	≤25	76(81.7)
	>25	17(18.3)
		23.9±4.73
Religion	Yes	45(48.4)
	No	48(51.6)
Marital status	Married	5(5.4)
	Unmarried	88(94.6)
Family income	<200	15(16.1)
	200~<400	31(33.4)
	400~<600	28(30.1)
	600~<800	11(11.8)
	≥800	8(8.6)
Hoping work place after the graduation	Tertiary Hospitals	61(65.6)
	General Hospital	10(10.8)
	Public Health Organization	11(11.8)
	Industry	4(4.3)
	Etc	7(7.5)

3.2 대상자의 HIV/AIDS 강의 전, 후 지식 & 태도 점수 정도와 차이

대상자의 동영상 강의 전과 후의 HIV/AIDS의 지식, 태도점수는 Table 2와 같다. 강의 전 지식점수는 11점 만점의 6.86±1.29점, 태도점수는 5점 만점의 3.50±0.67점이었고, 태도의 세부항목점수로 HIV 감염 두려움은 3.38±0.97점, HIV 감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3.78±0.97점, 개인적 낙인인식은 3.85±0.82점, 사회적 낙인인식은 3.11±0.81점이었다. 강의 후 지식점수는 10.08±0.98점, 태도 점수는 4.08±0.61점이었으며,

Table 2. The Degree of HIV/AIDS Knowledge, Attitude pre-test and post-test by Video Learning methods (N=93)

Variables	Pre-test	Post-test	Post-Pre	t	p
	M±SD	M±SD	M±SD		
Knowledge related of HIV/AIDS	6.86±1.29	10.08±0.98	3.22±1.54	20.16	<.001
Attitude related of HIV/AIDS	3.50±0.67	4.08±0.61	0.58±0.57	9.80	<.001
Fear of HIV-infection	3.38±0.97	4.30±0.78	0.91±0.81	10.87	<.001
Negative attitudes toward HIV-infection	3.78±0.72	4.49±0.62	0.71±0.73	8.30	<.001
Personal stigma recognition	3.85±0.82	4.47±0.68	0.62±0.78	7.70	<.001
Social stigma recognition	3.11±0.81	3.26±1.00	0.15±0.93	1.53	.128

태도의 세부항목 점수로 HIV 감염 두려움은 4.30 ± 0.78 점, HIV 감염의 부정적 태도는 4.49 ± 0.62 점, 개인적 낙인인식은 4.47 ± 0.68 점, 사회적 낙인인식은 3.26 ± 1.00 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 전과 후의 HIV/AIDS 지식과 태도간의 차이 점수는 강의 후 점수-강의 전 점수로 지식점수는 3.22 ± 1.54 점, 태도점수는 0.58 ± 0.57 점이었고, 태도의 세부항목으로 HIV 감염의 두려움 0.91 ± 0.81 점, HIV 감염의 부정적 태도 0.71 ± 0.73 점, 개인적 낙인인식 0.62 ± 0.78 점, 사회적 낙인인식 0.15 ± 0.93 점이었으며, 사회적 낙인인식을 제외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 지식, 태도의 강의 후-강의 전 점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HIV/AIDS에 대한 강의 후-강의 전 지식과 태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먼저 강의 후-강의 전 지식 점수는 성별, 나이, 종교, 결혼상태, 수입정도, 희망취업기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강의 후- 강의 전 HIV/AIDS 관련 태도의 세부 항목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HIV 감염의 두려움과 개인적 낙인인식은 성별, 종교, 결혼상태, 수입정도, 희망취업기간별 차이가 없었다. HIV감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서는 성별, 종교, 결혼상태, 수입정도, 희망취업 기관별로 차이는 없었으나,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2.12$, $p=.037$). 즉, 25세 이하에서 강의 후-강의 전 태도점수의 차이가 26세 이상에서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회적 낙인인식은 성별, 나이, 수입정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결혼상태($t=710$, $p=.008$)와 희망 취업기관별($F=2.85$, $p=.029$) 차이가 있었다. 즉, 미혼의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강의 후-강의 전 사회적 낙인인식의 차이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희망취업 기관별로 강의 후-강의 전 태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사후검정한 결과에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Differences of HIV/AIDS of Knowledge, Attitude between post-pre test scor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93)

Variables	Classification	n(%) or M±SD	Knowledge related of HIV/AIDS (post-pre)		Attitude related of HIV/AIDS							
					Fear of HIV-infection (post-pre)		Negative attitudes toward HIV-infection (post-pre)		Personal stigma recognition (post-pre)		Social stigma recognition (post-pre)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Sex	Male	2(2.2)	3.00±1.41	-0.20 (.843)	0.58±0.82	-0.58 (.564)	-0.50±3.06	-0.57 (.670)	0.00±1.98	-0.46 (.728)	-0.21±1.11	-0.56 (.580)
	Female	91(97.8)	3.22±1.55		0.92±0.81		0.73±0.64		0.64±0.76		0.16±0.93	
Age	≤25	76(81.7)	3.14±1.60	-0.93 (.354)	0.96±0.81	1.33 (.186)	0.78±0.64	2.12 (.037)	0.67±0.78	1.10 (.274)	0.17±0.96	0.60 (.550)
	>25	17(18.3)	3.53±1.23		0.68±0.76		0.37±1.02	*	0.44±0.79		0.03±0.79	
			23.9±4.73									
Religion	Yes	45(48.4)	3.42±1.50	1.26 (.210)	1.01±0.70	1.14 (.256)	0.86±0.53	1.98 (.051)	0.73±0.78	1.26 (.210)	0.18±0.74	0.37 (.711)
	No	48(51.6)	3.02±1.56		0.82±0.90		0.57±0.87		0.53±0.78		0.11±1.08	
Marital status	Married	5(5.4)	3.20±1.55	-0.27 (.784)	0.90±0.81	-0.72 (.473)	0.70±0.75	-0.18 (.855)	0.61±0.79	-0.52 (.607)	0.88±0.88	-2.70 (.008)*
	Unmarried	88(94.6)	3.40±1.52		1.17±0.87		0.77±0.53		0.80±0.51		1.20±1.17	
Family income	<200	15(16.1)	3.73±1.94	1.36 (.254)	1.09±0.98	1.13 (.344)	0.88±0.75	1.52 (.203)	0.52±0.64	1.60 (.181)	0.03±0.97	1.45 (.225)
	200~<400	31(33.4)	2.90±1.30		0.73±0.78		0.62±0.55		0.46±0.78		-0.11±0.76	
	400~<600	28(30.1)	3.54±1.35		1.10±0.80		0.89±0.67		0.91±0.72		0.35±0.90	
	600~<800	11(11.8)	2.91±1.64		0.88±0.49		0.53±0.55		0.44±0.61		0.22±0.86	
	≥800	8(8.6)	2.75±1.91		0.69±0.92		0.31±1.42		0.70±1.24		0.57±1.44	
Hoping work place after the graduation	Tertiary Hospitals	61(65.6)	2.50±1.78	1.02 (.403)	0.58±0.78	1.27 (.290)	0.47±0.58	1.93 (.112)	0.32±0.44	1.18 (.323)	-0.17±1.01	2.85 (.029)*
	General Hospital	10(10.8)	3.21±1.51		1.04±0.84		0.80±0.65		0.74±0.77		0.30±0.91	
	Public Health Organization	11(11.8)	3.82±1.66		0.85±0.85		0.83±0.80		0.51±1.00		-0.22±0.80	
	Industry	4(4.3)	3.00±1.15		0.71±0.34		0.58±0.50		0.55±0.25		0.79±0.85	
	Etc	7(7.5)	3.43±1.40		0.52±0.55		0.10±1.29		0.26±0.95		-0.55±0.61	

3.4 강의 전 HIV/AIDS 지식, 태도와의 관계 및 강의 후 지식, 태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강의 전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 및 강의 후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강의 전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의 전 지식과 태도에는 약한 상관관계($r=.37, p<.001$)가 있었으며, 강의 후에는 지식과 태도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r=.20, p=.056$)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HIV/AIDS Knowledge, Attitude before and after video learning

Variables	Knowl-edge score before lecture	Attitude score before lecture	Knowl-edge score after lecture	Attitude score after lecture
	r(p)	r(p)	r(p)	r(p)
Knowledge score before lecture	1			
Attitude score before lecture	.37 (.001)	1		
Knowledge score after lecture	.10 (.326)	.01 (.895)	1	
Attitude score after lecture	.30 (.004)	.61 (<.001)	.20 (.056)	1

3.5 주관식 기술내용 분석

추가분석으로 강의 후 교육을 통해 처음 알게된 것, 그리고 교육을 위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주관식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의미있는 내용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기술해보도록 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로 질병자체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 즉 AIDS와 HIV 감염이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것, 질병의 잠복기가 길다는 것, HIV 감염이 되기 위한 조건, 1회 노출시 HIV 감염확률, HIV 양성 진단을 위한 검사 방법, HIV/AIDS 치료제, 보편적 주의원칙, HIV 노출시 처치 방법, HIV 감염인과 비감염인의 사망률, HIV 감염 경로 등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두 번째로는 HIV/AIDS 통계에 대한 것들 즉, HIV 감염인의 성비, 생존하고 있는 HIV 감염인의 수 등에 대한 통계적인 수치를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세 번째로는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또는 요양병원 현실과 같은 HIV/AIDS와 관련된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교육을 위한 건의사항 및 자유로운 의견 제

시를 하도록 한 부분에서는 자신이 HIV/AIDS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이 협소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다는 의견, 자신의 차별적 인식에 대한 인지, 졸업 후 임상에 가기 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기술하였고, 교육 방법에 대하여는 객관적 수치에 의한 자료, 그리고 시각화 한 자료들로 인하여 집중되는 교육이었다는 의견,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할만한 교육 컨텐츠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후배들에게, 또는 더 낮은 학년에게, 또는 타 학과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기술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HIV/AIDS에 대한 교육을 동영상 강의형태로 제공하고 교육의 전과 후 지식과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동영상 강의 형태의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 추후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방법의 확대운영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자의 강의 전 HIV/AIDS 지식점수는 11점 만점에 6.86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62점으로, 선행연구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4] 결과인 66점과 유사하였다. 또한 태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50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19] 한 결과인 3.70점,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3.26점과[20] 유사하였다. HIV/AIDS와 관련한 태도 점수에서의 세부 항목에서는 사회적인 낙인인식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낙인인식, HIV 감염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HIV 감염의 두려움 순이었다. 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4]에서도 사회적 낙인인식 정도가 가장 부정적이었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HIV/AIDS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영상 강의 후 지식과 태도 점수는 각각 11점 만점의 10.07점, 5점 만점의 4.08점으로 상승하였고, 사후-사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HIV 교육 전 후 지식과 태도를 측정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고[20], 교육방법을 강의식, 토론식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 HIV 교육 전과 후의 점수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19]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HIV/AIDS에 대한 태도의 세부항목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교육 전과 후의 점수 차이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차이가 미비한 항목은 사회적 낙인인식 점수 차이였다. 이는 교육을 통한 정확한 지식전달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태도, 개인적인 낙인인식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가능했지만 사회적인 낙인인식에는 효과가 미비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낙인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증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역할극, 활동중심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HIV/AIDS 교육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비교한 연구[21]나, 의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방법을 강의군과 토의군으로 나누어 교육방법별로의 교육 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19]를 확인해 봐도 교육의 방법별로는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추후에도 다양한 교육방법을 시도하여 교육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동영상 교육방법 또한 시도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강의 후-강의 전 HIV/AIDS 지식, 태도의 차이 점수의 비교에서는 사회적 낙인인식의 경우 미혼이 기혼보다 태도의 변화 점수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혼의 경우 HIV/AIDS에 대한 지식,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결과[22]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혼과 기혼의 대상자 수의 편차가 크므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이 된다.

HIV/AIDS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의 전에는 지식과 태도간의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22]에서도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강의 후에는 지식과 태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지식이 높아졌다고 하여 태도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이는 국내에서 성인의 AIDS 지식과 태도를 유형별로 분류한 연구[23]에서 지식과 태도가 상관 없이 “높은지식 부정태도군”이라 명명되는 부류이기도하며, 다른 선행연구[24]에서도 AIDS 지식과 태도와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으로 HIV/AID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지식이 부족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질병의 지식전달을 위주로 하는 교육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적인 교육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HIV/AIDS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25] 강연이나 특강을 통해 HIV/AIDS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 태도가 긍정적이었던 결과는 일반 간호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더불어 이번에 시도된 특강 형식의 교육의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추가적인 내용분석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대상자들은 그동안 배웠던 질병으로서의 HIV/AIDS에 대한 접근에서 질병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HIV와 관련된 전문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에게 좀 더 실제적인 HIV/AIDS에 대한 강의를 들려주었다는 것에서 강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HIV/AIDS에 대한 교육은 질병중심으로서의 접근이 아닌 좀 더 통합적이고 사례중심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HIV/AIDS 교육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HIV 감염인상담사업의 담당자들인 HIV 상담간호사가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HIV 감염인 상담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감염인 지원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2020년 현재 전국의 26개 의료기관에 기관별로 1~4명의 HIV감염인 상담간호사가 배치되어 HIV 감염인들의 복약상담 및 심리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26]. 우리나라 HIV/AIDS 관련 많은 사업 중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사업기관을 30개 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다. HIV 감염인 상담간호사들은 누구보다도 감염인들의 일상을 잘 알고, 이들을 돕고 있는 인력들로서 HIV 감염인들의 인권교육을 위해서 잘 훈련되고 활용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개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동영상 특강을 제공하고 교육 전, 후의 지식과 태도를 확인한 연구로서 대조군 없이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연구이다. 단일군 사전 사후 설계이므로 대상자들의 성숙에 의한 지식, 태도의 변화가 가능성이 있고, 대조군이 없으므로 지식 및 태도의 변화가 교육의 효과로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동영상 강의는 일방향적인 강의 형태로 대상자들의 질문이나 피드백을 즉시 확인하거나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동영상 강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강의에 대한 대상자들의 반응이나 질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대면강의에 어려움이 있던 2020년의 교육계 현황 속에서 동영상을 이용한 특강의 형태로 대상자들의 지식과 태도에 차이를 확인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추후에도 이러한 동영상 활용 강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할 때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였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상황에서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비대면 강의로서 최근 많이 활용되어 온 동영상 강의방법으로 HIV/AIDS에 대한 특강을 적용하여, 사전, 사후 HIV/AIDS 지식, 태도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영상 강의 전보다 후에 HIV/AIDS 지식과 태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태도의 세부항목 중 사회적 낙인인식의 차이는 미흡했다. 그러므로 사회적 낙인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식과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지식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되 HIV/AIDS에 대한 인식개선을 좀 더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해 본다면, 첫째, 동영상 강의와 대면 강의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HIV/AIDS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서 HIV 상담간호사들을 활용하여 HIV 감염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규교과목 외의 동영상 특강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Annual report on the notified HIV/AIDS in Korea. Cheongju: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2] S. G. Deeks, S. R. Lewin, D. V. Havlir, "The end of AIDS: HIV infection as a chronic disease", *The Lancet*, Vol.382, No.9903, pp.1525-1533, 2013.
- [3]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jong :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cited 2020 July, 06], Available From: <https://bit.ly/2Z9Dsm4>
- [4]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survey on HIV/AIDS knowledge,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2015",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 [5] E. Jung, "AIDS news framing analysis: Focusing on critical health journalism perspectives." *Korean J Journal Commun Stud*, Vol.52, No.4. pp.223-249, 2008.
- [6]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IDS Guidline for media"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20 July 07], Available From: <https://bit.ly/2OaA9op>
- [7] YS. Rhe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knowledge, attitude and social distance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0, pp.338-344,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10.338>
- [8] HJ. Lee, DH. Kim, YJ. .Na, MR. Kwon, HJ.Yoon, WJ. Lee, SH. Woo. "Factors associated with HIV/AIDS-related stigma and discrimination by medical professionals in Korea: A survey of infectious disease specialists in Korea." *Nigerian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Vol. 22, No. 5, pp. 6758-68, 2019. DOI: http://dx.doi.org/10.4103/njcp.njcp_440_17
- [9] World Health Organization, "Coronavirus disease pandemic" [internet]. Geneva: who.int[cited 2020 July 06], Available From: <https://bit.ly/2O5H5DC>
- [10] Seoul Newspaper, "coronavirus from itaewon" [Internet]. Seoul: seoul.co.kr [cited 2020 July 06] Available From: <https://bit.ly/3f8CENp>
- [11] G. S. Kim, et al., *Medical Surgical Nursing* 8th, 942, 2016, pp. 154-162.
- [12] Lowdermilk, Perry, Cashion, Aldern, *Maternity & Women/s Health care*, 11th Edition, Hyunmoonsa, 2017, pp.306-310.
- [13]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jong : Prevention of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ct. [cited 2020n August, 04], Available From: <https://bit.ly/33na8v9>
- [14] Y. M. Kim, J. S Han, O. C Lee,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HIV/AIDS in comparison with chronic hepatitis B among female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40, No.2, pp.31-39, 2014.
- [15] H-M. Ahn, J. S. Yoo, C. G. Park, M. O. Kim, "HIV/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2, No.1, pp.108-120, 2008.
- [16]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jong :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cited 2020 July, 07], Available From: <https://bit.ly/2ABUYWN>

[1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The 4th Health plan 2020" Seoul: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5. Available From:<https://bit.ly/3eb78UJ>

[18]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oronavirus Disease-19, guidelines"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vailable From:<https://bit.ly/3fcfVXi>

[19] M. H. Seo, S. H. Jeong. "The Effect of HIV/AIDS Education Program for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by Teaching-Learning Method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519-532,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519>

[20] J. M. Lee, S. J. Hong, E. H. Kim. "The Effects of HIV/AIDS Education on Knowledge, Attitude, and Satisfaction for AIDS Prevention Self Massage on College Students in Korea". Medico Legal Update, Vol.20, No.1, pp.1466-1471, 2020.

[21] S. J. Lee, J. H. Jeon, "Effects and Methods of AIDS Prevention Education for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6, pp.169-183, 2016.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6.6.6.017>

[22] K. S. Park. "Impact of Knowledge and Attitude of HIV/AIDS among individuals in their 20s to 40s: An Analysis of the Community Health Surve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2, pp.404-415,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2.404>

[23] Y. R. Yang, "Types of AIDS Knowledge and Attitudes in a Korean Population and Their Related Factors", Korea Health Research, Vol.41, No.4, pp.51-62,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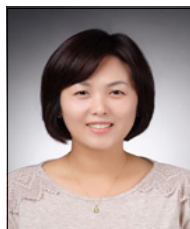
[24] M. H. Seo, S. H. Jeong, J. H. Shin, M. I. Le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HIV/AIDS among Professional Graduate Medical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255-265, 2015. DOI: <https://doi.org/10.14400/JDC.2015.13.11.255>

[25] H. S. Lee, et al., "A study on nursing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of HIV/AIDS and hepatitis B",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9, No.3, pp.474-487, 2015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5.29.3.474>

[26]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ternet]. Cheongju: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ited 2020 July 06] Available From:<https://bit.ly/2CbEzJg>

서 명 희(Myoung Hee Seo)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석사)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대학(박사)
- 2011년 5월 ~ 2017년 2월 : 전북대학교병원 HIV 상담간호사
- 2017년 3월 ~ 2019년 2월 : 군산간호대학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관심분야〉

지역사회 간호, 간호관리, HIV, 교육